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,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와 (나)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. (가)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, (나)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. 한편 (나)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(가)와 차이를 보인다.

① (가)의 ‘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’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.

② (나)의 ‘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.’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.

③ (가)의 ‘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’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, (나)의 ‘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’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.

④ (가)의 ‘도무지 할 일 없어’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, (나)의 ‘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’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.

⑤ (가)의 ‘도가 어찌 다르리’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, (나)의 ‘의를 잃’은 것에 대해 ‘이후에는 마땅히 조심’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.